브라질, 에탄올 공급 부족 우려

브라질, 에탄올 Swing Producer로 영향력 증대 전망

미국은 세계 최대 에탄올 수출국인 브라질에게 부족한 연료첨가제 공급을 의존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브라질은 미국의 연료 배합자들의 요구가 있더라도 제품의 추가공급이 없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의 7개 주요 정유회사들은 이번 달부터 휘발유 첨가제 MTBE의 사용중지를 적용받게 된다. 그 결과 에탄올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옥수수-에탄올 생산자들도 생산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브라질은 올 해 에탄올 생산량이 사탕수수기준 160억리터로 지난 해의 154억리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브라질의 에탄올 공장은 갤런당 1달러 이하의 비용으로 에탄올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상파울로에 소재한 트레이더들은 올 해 브라질이 수출할 수 있는 에탄올이 작년 수준을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유가와 연료가 변차량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내수 소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사탕수수 제품에 비견될 수 있는 정제설탕의 가격은 25년래 최고가를 기록했다.

트레이더들은 에탄올이 자동차 연료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에탄올 내수 소비증가가 계속된다면 올 해 수출 가능한 에탄올 물량은 지난 해의 24억리터에 비해 크게 감소한 10억리터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한다. 상파울로의 사탕수수 재배협회인 Unica는 올 해 수출 가능량을 20억리터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4월 브라질의 무역부는 내수 공급을 수출보다 우선 고려하도록 자국의 사탕수수업계에게 주문하였다.

이러한 에탄올 공급우려로 브라질에서는 3월 한 달동안 에탄올 가격이 14%나 급등하였는데, 이는 지난 3년간 가장 큰 폭의 가격상승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여전히 에탄올이 휘발유에 비해 평균 33%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